

영암군, 치매전담요양원 도시근교형으로 가닥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기본계획 마련 설립키로 “최적화된 노인복지 인프라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영암군이 1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근교형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영암군은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암군은 이날 최종보고와 토론을 바탕으로 도시형과 전원형을 절충한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영암군은 ‘치매전담형 요양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6월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전문 용역 업체가 지역 환경분석, 부지 적정성 검토, 관련

부서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영암군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의 타당성을 살피도록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업체는 설립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우승희 영암군수와 관련 부서 담당자 등에게 알리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치매전담요양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이는 앞으로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최적화된 노인복지 인프라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암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벼 대체 작목 ‘울무’ 육성...전 과정 기계화 추진 왕우렁이 활용 유기농법으로 재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논 이용 울무 이앙 기계화 재배 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벼 대체 작목 육성을 위해 함평읍 장년리 일원에 2ha 규모로 밭작물인 ‘울무’를 이앙 재배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무는 항암, 시력보호,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왕우렁이를 활용해 제조제 없이 유기농법으로 친환경 울무를 재배할 계획이다.

또, 육묘에서 수확까지 재배 전 과정에 기계화 시스템을 도입, 2~3년 내로 재배면적을 100ha까지 확대해 울무 재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울무 이앙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영광군, 떡산업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 행사장서 떡산업식품전 홍보부스 운영 ‘호응’

영광군과 (사)영광에서 모시잎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영광지역 떡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 행사장에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영광떡산업식품전’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대표 특산물인 영광 모시잎송편 외에도 관내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떡 제품들을 기획 전시 홍보하였으며 최근 떡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떡 제품 및 지방소멸 및 기후 위기를 막는 영광 떡 산업 시장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관내 25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지리적표시 제104호 영광모시잎송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미국수출제품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제품 △가업승계 청년창업 떡집 △영광보리모시잎산업특구 △지역농산물 활용 답례품 △건강 기능성 떡류 제품 등 다양한 구성으로 기획 전시 운영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를 막는 지역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30명을 초청하여 할매니얼 디저트류 제품 시식, 떡메치기, 제철 모시잎차 다도 클래스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영광모시잎송편은 현재 관내 130여개의 떡 가공업체가 지역 농업인들과 상생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부, 지역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 꾸준히 지역특산물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진 귀한 떡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유자)는 추석 명절에 만 찾는 떡이 아니라 비수가 없이 꾸준히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떡 제품들을 육성 지원하여 ‘조심’ 강조 마케팅 및 지방소멸과 기후 위기를 막는 대표 특산자원으로 제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시, 전기버스 보급사업 시행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받아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대의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중형 최대 8,642만원, 대형 1억2,1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이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하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갯벌 속의 산삼’ 낙지 9천마리 방류한다

신안군은 갯벌생태계 회복을 위해 갯벌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갯벌 속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낙지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낙지 방류사업은 자원량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컷, 수컷 1마리씩 2~3일간의 교접작업 후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교접을 통해 방류한 낙지는 일반적으로 20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압해읍, 지도읍, 도초면, 팔금면, 안좌면 등 스마트블리치 낙지자원 관리지역과 낙지목장을 중심으로 방류를 추진한다. 이번 방류는 총 9천 마리의 낙지를 방류하며 방류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금어기에 가까운 시일에 진행하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낙지의 남획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확대하는 등 민과 관이 협력하여 자원보호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의 빨낙지는 우수한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낙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역민과 관이 협력하여 낙지자원을 방류하고 보호하는 만큼 자원량의 증대를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 ‘깨끗한 무안 만들기’ 백련길 건강생활도로 가꾸기 구슬땀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복례)는 지난 23일 오전 깨끗한 무안 만들기의 목적으로 백련길 건강생활도로 가꾸기 활동을 펼쳤다.

일로읍 새마을부녀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일로읍의 내 집 앞 힐링 공간의 대표명소인 백련길건강생활도로 용산리 2.5km 구간의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이복례 일로읍 새마을부녀회장은 “건강생활도로 환경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곳에서 힐링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